

보도시점 2024.12.2.(월) 배포시점 배포 2024.12.2.(월)

방통위 회의실을 '심판정'으로 한 것은 주요 심의·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도내용

- 채널A는 12월 1일 「‘심판정’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」 제하의 보도를 통해
 -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,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보도

□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,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임
 -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,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·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임
- 아울러 심판정 내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, 일반인 등 외부인의 취재와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
 - 또한 회의장 내 동선과 출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 출입문을 분리한 것임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의안정책관리팀	책임자	팀 장	박동표 (02-2110-1380)
		담당자	주무관	김서영 (02-2110-145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